

## 채용 공고를 활용한 의료통역 주체 역할 연구

김민정  
(이화여대)

### 1. 서론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기 허용된 이후 지난 10여 년간 국내 의료 환경에서 국제진료 분야가 크게 성장하면서, 국제진료 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언어간, 문화간 커뮤니케이션을 중재하는 의료통역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하지만 의료통역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국내 의료 환경에 맞는 의료통역 인력의 직무와 역할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김순미 2020; 정진철 외 2014; 정진철 외 2015; 조승아 2017; 황지연 2015).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복지 인력개발원을 중심으로 2014년부터 의료통역사 양성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현재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몽골어, 베트남어 7개 언어에 대한 의료통역사 검정시험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프로그램 참여나 검정시험 합격은 의료통역 업무를 하기 위한 필수 자격 요건이 아니며, 우대사항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국내 의료 현장에서 의료통역 주체의 역할과 직무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부 주도의 교육이나 검정시험을 통해 제시되는 역할과 의

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할이 부합하지 않아 생기는 결과로 여겨진다. 한편 김순미(2020)는 의료통역 연구 시 이를 둘러싼 생태계를 함께 관찰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의료통역 연구를 위해서는 의료통역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환경을 같이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의료통역이 일어나는 사회적 환경으로서 의료통역 주체를 고용하는 기관이 기대하는 의료통역 주체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 구직 사이트 채용 공고에서 의료통역 주체를 구인하려는 기관의 특징과 공고 상의 주요 업무와 자격사항 및 우대사항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선행연구에서 직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한 의료통역 주체의 역할은 무엇인가? 둘째, 채용 공고에서 나타난 구인 기관에서 기대하는 의료통역 주체의 역할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기존 직무분석을 기반으로 제시한 의료통역 주체의 역할과 채용 공고에서 나타난 역할에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번 연구는 의료통역을 의료관광이나 다문화 관점으로 나누지 않고, 의료통역이 일어나는 생태계인 채용 기관에서 의료통역 주체들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의료통역을 수행하는 주체에 대한 연구로서 채용 공고를 통해 이들의 역할을 살펴보고, 기존 직무분석 결과와 비교해 봄으로써 현재 운영 중인 교육 프로그램, 자격 또는 검정시험을 개선하는 데 활용 가능한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분석

#### 2.1 의료통역 주체 역할 연구

통번역 행위의 주체로서 통번역사의 역할, 지위, 정체성을 다루는 통번역사 연구(translator s study)가 다양한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연구 대상인 의료통역 주체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해외에서는 대표적으로 의료통역사의 가시성과 중재 역할에 대한 연구(Angelelli 2004; Kaufert and Putsch 1997; Zhan and Zeng 2017)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우선

의료통역 주체의 명칭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김순미(2020)는 종합병원 국제진료소 팀장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인하우스 코디네이터 중심의 의료통역 시스템 현황을 보여주었다. 같은 연구에서 밝히고 있듯이 코디네이터 제도는 직군과 업무의 모호함을 동반하게 되어(김순미 2020), 의료통역의 전문성과 정체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내 의료 환경에서 코디네이터라는 직군은 ‘진료코디네이터 간호사’, ‘HIV/AIDS 코디네이터 간호사’, ‘암환자 코디네이터 간호사(심원희, 이주연 2016) 등 특정 목적을 중심으로 업무를 설정하는 형태로 자주 활용되는 명칭이다. 다시 말해 코디네이터는 적어도 국내에서는 해당 업무를 통합적으로 보고, 특정 치료나 돌봄이라는 목적을 중심으로 업무 범위를 설정하는 명칭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한편 국내 의료통역 연구는 의료관광을 중심으로 보는 시각과 결혼 이민자를 진료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관점에서 보는 시각으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하는 경향이 있다(김기태 2020; 김순미 2018; 황지연 2015). 이러한 분류는 국내 국제진료 환경이 정부 차원의 정책과 사업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의료관광을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지정하면서 문화관광부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이 이루어졌고, 고용노동부나 여성가족부에서는 결혼이민자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공공 서비스 제공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처럼 정부 주도적 흐름의 영향을 받아 의료통역에 대한 논의도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로트와 크레제(Roat and Crezee 2015)가 정리하고 있듯이 의료통역은 사회정의나 법률적, 규제적 논의 뿐 아니라 의료의 질, 환자 안전, 의료 비용 등과 같은 관점에서도 중요한 이슈이다. 따라서 의료통역의 여러 관점들을 다루기 위해서라도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 사이의 언어 장벽을 낮추는 의료통역의 본질에 집중하여 국내 의료통역 주체의 역할을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앞서 이지은(2015) 역시 커뮤니티 통역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에서 의료통역 주체에 대한 전문성 요건과 직업위상에 대한 문제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의료 서비스 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 2.2 국내 의료통역 주제 직무분석 연구

특정 직군의 역할 연구의 한 방법으로 직무분석을 활용할 수 있다(정영희 외 2009; 심원희, 이주연 2016). 역할과 직무분석의 관계에 대해 라이사트(Lysaght 1997)는 사회적 책무로서 직무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로 역할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직무분석 결과에는 이번 연구에서 채용 공고를 통해 살펴볼 의료통역 주체의 학력 조건, 급여,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작업명세서, 책무(Duty) 및 작업(Task)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선행 연구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의료통역 주제에 대한 직무분석 연구로는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발주 연구보고서(정진철 외 2015)에 나온 내용과 김정순 외(2011)에서 제시한 직무분석 결과가 있다. 정진철 외(2015)의 의료통역사 자격체제 개발 2차 연구는 의료통역사 검정시험 개발을 목적으로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으며, 두 연구 모두 DACUM기법을 활용하여 의료통역 주체의 직무를 분석하였다. DACUM 기법은 교육이나 훈련을 목적으로 산업현장 직무를 단시간 내에 추출하는 방법으로 해당 직무에 탁월하다고 평가 받는 사람이 업무를 정확히 기술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직무의 정의, 책무, 작업, 필요 지식, 기술, 태도를 도출한다(정진철 외 2015). 김정순 외(2011)의 직무분석 연구는 정진철 외(2015)의 직무분석보다 앞서 수행되었으며, 연구자들이 간호학 전공자로 의료통역 주제에 대한 의료계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두 연구의 직무분석 결과로 나온 작업명세서 중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자격요건, 담당 업무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표 1>로 정리하였다.

<표 1> 의료통역 주제 작업명세서 비교

	국제진료코디네이터) 직무분석 (2011)	의료통역사 자격체제 개발 2차 연구 (2015)
직업명	국제진료코디네이터	의료통역사
필요 학력	전문대 이상	전문대졸 이상
적정교육 훈련기관	전문대 이상의 보건관련학과	공공교육 훈련기관
최소교육 훈련기간	1~2년	12개월

직업적성 직업기초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어 능력</li> <li>- 의학용어 이해 능력</li> <li>- 타 문화 및 매너에 대한 이해</li> <li>- 정보처리(수집, 분석, 처리)능력</li> <li>-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된 벤치마킹 및 마케팅 능력</li> <li>- 의료분쟁 시 문제해결능력</li> <li>- 대내외적인 대인관계 능력</li> <li>- 컴퓨터 활용능력</li> <li>- 법률 및 보험제도 이해능력</li> <li>- 상담기법 및 의사소통기술</li> <li>- 업무에 대한 책임감 및 사명감</li> <li>- 리더십, 자신감, 인내심 능력</li> <li>- 자기개발을 지향하는 능력</li> <li>- 세련된 용모와 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바탕으로 통역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li> <li>- 상대방의 정보나 상황을 보고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li> <li>-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과 글로써 전달할 수 있는 능력</li> <li>- 다른 사람과 더불어 일할 수 있는 능력</li> <li>- 외국어를 정확히 구사할 수 있는 능력</li> <li>- 윤리적인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능력</li> <li>- 직업기초능력: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 능력, 자원활용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li> </ul>
임금수준	초봉 2,400만원 이상	초임) 2,400만원 3년경력) 2,700만원
관련직업 과의관계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환자진료와 연관된 여러 분야와 긴밀한 협조가 요망되는 직업임</li> <li>- 한국표준직업분류상에 그 영역이 명확 하진 않지만, 간호사 및 병원관리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유사한 직종이라 할 수 있음.</li> <li>- 외국인환자의 마케팅, 고객진료지원, 리스크관리, 관광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기 때문에 별도의 직업으로 제시해야 함</li> </ul>	미제시

1) 김정순 외(2011)에 따르면 의료관광이라는 용어가 시작되기 전에도 우리나라에 약 20여개 병원에서 외국인을 담당하는 간호사 및 코디네이터들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이들을 외국인 전담간호사, 외국인 전담 코디네이터 등으로 호칭하였다. 2010년 4월 글로벌 헬스 케어 & 의료관광 컨퍼런스 코리아에서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를 돌보는 사람을 국제진료코디네이터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표 1>에서 보듯이 모두가 국제진료에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환자와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을 중재하는 의료통역 주체인 의료통역사와 국제진료코디네이터의 직무분석 결과, 두 연구 모두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며, 공공교육 훈련 기관이나 전문대 이상의 보건관련학과 교육, 최소 1년 이상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직업 적성 능력으로 외국어 능력,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등을 동일하게 제시하였다. 한편 정진철 외(2015)의 연구와는 달리 김정순 외(2011)의 연구에서는 국제진료진료코디네이터가 환자와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을 돕는 ‘통역’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통역’이라는 단어를 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외국어 능력과 타문화 이해 능력이 필요하다고만 제시하였고, 추가로 상담능력, 마케팅, 위기 관리 능력을 제시하였다. 이는 해당 연구가 진행된 2011년에는 국내에서 문화간, 언어간 의료커뮤니케이션에 관여하는 의료통역을 별도의 업무로 인식하지 못했던 결과라고 여겨진다.2)

위의 작업명세서를 바탕으로 두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책무와 작업을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의료통역 주체의 책무와 작업 비교

	국제진료코디네이터 직무분석(2011)	의료통역사 자격체제 개발 2차 연구(2015)
책무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고객응대서비스-진료예약, 변경 관리, 진료접수, 대기고객응대, 진료비 관리, 보험청구, 진료과정 안내, 환자 만족도 관리 등</li> <li>B. 간호수행 및 진료지원-문진, 신체검진, 활력징후측정, 간호처치 돕기, 수술/시술 참여, 응급환자 대처, 진료를 위해 의사와 상담, 검사결과 알려주기</li> <li>C. 리스크 관리-리스크 예방, 확인 및 분석, 불만 처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의료행정지원-수속지원 통역, 의료문서처리 지원, 국제의료행정지원</li> <li>B. 진료통역-예진, 진료내역, 진료경과 및 결과 통역</li> <li>C. 검사통역-내용, 주의사항, 과정 통역</li> <li>D. 치료통역-내용, 주의사항, 과정 통역</li> <li>E. 수술 및 시술 통역-내용, 주의사항, 과정, 사후 통역</li> <li>F. 상담교육-약제상담, 자가관리, 취약환자 및 보호자 통역</li> </ul>

2) 김정순 외(2011)의 교신저자로부터 당시 연구에 참여했던 국제진료코디네이터가 의료통역 업무를 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 3. 연구 방법

	의료사고 처리 D. 병원 마케팅-마케팅 기획 및 전략, 홈페이지 관리, 홍보물 제작, 의료상품개발 및 판매 등 E. 관광지원-관광업체 계약 체결, 호텔/항공 예약 등 F. 관 행정업무-통계관리, 업무보고서 작성, 외국보험 관련 업무 등 G. 교육 및 상담-질환 및 검사관련 상담, 수술/시술관련 상담, 교육자료 만들기 등 H. 자기개발-관련 학회 참석, 최신정보수집, 외국어능력개발 등	
--	--	--

정진철 외(2015)에서 제시한 의료통역사의 책무는 총 6가지 중 4가지가 의료통역이고 그 외 의료행정지원, 상담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김정순 외(2011)의 연구에서는 앞서 직업명세서에서도 밝혔듯이 의료통역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주도적으로 외국인 환자를 응대하고, 간호를 수행하며, 리스크 관리, 마케팅 등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직무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김정순 외(2011)의 직무분석 워크숍에 참여한 연구 대상 62명이 인하우스 국제진료코디네이터들이었고 그 중 43.5%가 간호학, 9.7%가 의료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진료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겨진다. 하지만 의료와 관련이 없는 학과를 전공한 인원(언어 관련학과, 기타)도 46.85%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들도 진료에 참여하고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한편 정진철 외(2015)의 직무분석 워크숍에 참여한 연구 대상인 9명의 의료통역사는 상급종합병원 소속 인하우스 6명과 프리랜서 3명이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병원의 규모가 커서 의료통역사와 타 직종 간의 업무 구분이 가능할 수 있고, 프리랜서 의료통역사의 경우 인하우스 의료통역사보다 통역 외 업무에 많이 관여하지 않는 결과로 여겨진다.

앞서 살펴본 의료통역 주체 직무분석 선행연구는 의료통역 주체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과 설문을 바탕으로 한 역할 연구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의료통역이 일어나는 사회적 환경인 의료통역 채용 기관에서 기대하는 의료통역 주체의 역할을 보기 위해 채용 공고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세부적인 자료 수집 방법과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3.1 채용 공고 수집

의료통역 주체 채용 공고 수집을 위해 여러 국내 구인구직 사이트 중 ‘병원통역’으로 검색하여 채용 공고가 검색된 사람인(www.saramin.co.kr), 잡코리아(www.jobkorea.co.kr) 사이트를 활용하였고, 추가로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바이오헬스넷(https://biohealthnet.kohi.or.kr/employ/recruit/list.do) 채용공고 사이트를 확인하였다. 채용 공고 수집 기간은 2021년 8월 한 달로 해당 사이트에 올라온 채용 공고를 매주 월요일마다 업데이트하였다. 매주 사람인, 잡코리아, 바이오헬스넷 사이트 순으로 검색하였으며, 사람인, 잡코리아에서는 ‘병원통역’ 검색어를 입력하여 나오는 채용 공고를 대상으로 하였고, 바이오헬스넷 사이트에서는 글로벌헬스케어 분야에 올라온 채용 공고를 확인하였다. 앞서 검색한 사이트에서 동일한 채용 공고가 나왔을 경우나 이전 주에 이미 포함된 채용 공고로 기간만 연장된 경우는 동일한 채용 공고로 보고 추가하지 않았다. 또한 수어 통역이나 의료 분야가 아닌 기업의 채용 공고, 통역 업무를 하지 않는 한국인 코디네이터 공고는 제외하였다. 하나의 채용 공고에서 여러 언어를 구인할 경우, 개별 공고로 보고 분리하여 총 73개의 채용 정보를 수집하였다. 수집 내용으로 검색일, 검색 사이트, 채용 공고 제목, 기관명, 기관 종류, 위치, 진료과, 채용 언어, 학력 및 경력 조건, 근무형태, 급여, 주요 업무, 자격사항, 우대사항을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 3.2 자료 분석

채용 기관 종류, 진료과, 위치, 채용 언어에 대한 빈도 분석을 통해 의료통

역 주체에 대한 수요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지원을 위해 필요한 학력 및 경력 조건, 근무 형태, 급여 조건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채용 공고 상에 제시된 주요 업무, 자격 사항과 우대 사항을 분석하여, 채용 기관에서 의료통역 주체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4. 분석 결과

##### 4.1 일반적인 특징

총 73개의 채용 정보는 사람인 사이트에서 37건, 잡코리아 사이트에서 33건, 바이오헬스넷 사이트에서 3건 수집하였다. 앞에 검색한 사이트와 중복되는 사례가 있어 수집되는 건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바이오헬스넷에 올라온 채용 공고가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연구 방법과 동일한 제외 조건을 적용하여 특정 시점에 올라온 채용 공고 건수를 살펴보면, 사람인 19건, 잡코리아 41건, 바이오헬스넷 9건이었다.

##### 4.1.1 채용 기관 종류, 진료과, 위치

채용 기관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채용 공고를 올린 기관의 종류, 진료과, 위치를 <표 3>에 정리하였다. <표 3>에서 보듯이 이번 연구 대상이 된 채용 공고를 낸 기관 중 다수가 서울 강남지역에 위치하는 성형외과, 피부과 병원 또는 의원이었다. 우선 기관의 종류를 살펴보면, 병원이나 의원이 60%(4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병원 홍보나 컨설팅, 보험 청구 기관이 27%(20건), 종합병원이 7%(5건), 기타(헤드헌팅, 콜센터, 검사기관) 기관이 6%(4건)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종합병원 뿐 아니라 성형외과 등 미용 관련 진료과의 병의원에서도 인하우스 형태의 의료통역 주체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직접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병원이나 병의원 뿐 아니라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 홍보, 컨설팅 등에 특화된 기업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이러한 기업에서도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의료통역

주체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채용 기관의 진료과는 성형외과, 피부과, 비만관리가 73%(53건)을 차지하였고, 특정 진료과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23%(17건), 치과나 한의학과 같은 기타 분야가 4%(3건)이었다. 해당 결과를 기관 종류와 같이 살펴보면, 병원이나 종합병원, 기타 중 일부가 특정 진료과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1~2개의 진료과만을 운영하는 의원과 마케팅 기업 대부분은 성형외과, 피부과, 비만관리를 진료과로 하고 있었다. 이번 연구 대상이 된 채용 공고 대부분의 채용 형태가 정규직 인하우스라는 점을 고려하면, 질병 치료 목적의 진료과보다 미용 관련 진료과에서 서비스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의료통역 및 상담, 마케팅 업무를 담당할 의료통역 주체를 찾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채용 기관의 위치는 <표 3>에서 보듯이 서울 강남 지역이 70%(51건)이었다. 강남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성형외과가 많고, 홍보, 마케팅 등의 형태로 이를 지원하는 기업도 대상 병원 근처에 위치하기 때문에 여겨진다.

<표 3> 채용기관 종류, 진료과, 위치

채용기관 종류		진료과		위치	
구분	건수(비중)	구분	건수(비중)	구분	건수(비중)
병원, 의원	44건(60%)	성형외과, 피부과, 비만관리	53건(73%)	서울 강남	51건(70%)
홍보, 컨설팅, 보험청구	20건(27%)	불명	17건(23%)	서울 강북	11건(15%)
종합병원	5건(7%)	기타	3건(4%)	기타	11건(15%)
기타	4건(6%)	-	-	-	-
합계	73건(100%)	합계	73건(100%)	합계	73건(100%)

##### 4.1.2 채용 언어

<표 4>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채용 기관의 언어 수요는 빈도 순으로 영어(33%, 24건), 태국어(18%, 13건), 중국어(12%, 9건), 일본어, 베트남어(8%, 6건), 러시아어/우즈베크어(7%, 5건), 몽골어(4%, 3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3%, 2건), 아랍어, 타갈로그어(필리핀), 언어무관(1%,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채용 언어

언어	건수	비중	의료통역검정시험
영어	24건	33%	대상 언어
태국어	13건	18%	-
중국어	9건	12%	대상 언어
일본어	6건	8%	대상 언어
베트남어	6건	8%	대상 언어
러시아어/우즈베크어	5건	7%	대상 언어
몽골어	3건	4%	대상 언어
인도네시아어	2건	3%	-
캄보디아어	2건	3%	-
아랍어	1건	1%	대상 언어
타갈로그어	1건	1%	-
언어무관/한국어 가능 외국인	1건	1%	-
합계	73건	100%	-

현재 의료통역 검정시험 대상 언어인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몽골어, 베트남어뿐 아니라 태국어, 인도네시아어와 같은 동남아시아 언어 의료통역 주체에 대한 수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다양한 동남아시아 언어에 대한 수요는 의료통역을 의료관광과 다문화 관점으로 구분하는 접근법이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베트남어의 경우, 결혼 이민자가 환자가 되는 다문화 관점에서 필요한 언어라고 여겨졌지만, 이번 연구 대상 채용 공고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료관광의 대표 진료과인 성형외과, 피부과에서도 수요가 많은 언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4.1.3 학력 및 경력 조건, 급여, 근무형태

〈표 5〉에서 분석 대상 채용 공고를 통해 확인된 의료통역 주체의 학력 및 경력 조건, 급여, 근무 형태를 선행 직무분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우선 채용 공고에서 제시하는 의료통역 주체의 학력 조건은 학력무관(42%, 31건), 전문대졸(30%, 22건), 대졸이상(14%, 10건), 고졸이상(14%, 1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무분석을 통해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조건을 제시한 선행연구(김정순 외 2011; 정진철 외 2015) 결과에 비해 학력 조건이 엄격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경력조건을 살펴보면, 경력무관으로 제시한 채용공고가 대부분으로 82%(60건)을

차지하였고, 1년 이상(10%, 7건), 2년 이상(3%, 2건), 3년 이상(4%, 3건), 5년 이상(1%, 1건)으로 업무 경력을 요구하는 채용 공고는 18%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채용 공고에서 요구하는 학력이나 경력 조건이 엄격하지 않아 의료통역 주체로 근무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하여, 의료통역 주체에 대한 낮은 학력 및 경력 조건은 의료통역 품질에 대한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표 5〉 학력 및 경력 조건, 급여, 근무형태 비교

	직무분석 선행연구		채용공고 분석결과 2021년
	2011년	2015년	
학력 조건	전문대 이상	전문대졸 이상	학력무관 31건(42%) 전문대졸 22건(30%) 대졸 10건(14%) 고졸 10건(14%)
경력조건	미제시	미제시	경력무관 60건(82%) 1년 이상 7건(10%) 2년 이상 2건(3%) 3년 이상 3건(4%) 5년 이상 1건(1%)
임금수준	초봉 2,400만원 이상	초임) 2,400만원 3년경력) 2,700만원	회사내규에 따름 46건(63%) 면접후 결정 13건(18%) 2,200만원 이상 5건(7%) 2,500만원 이상 5건(7%) 3,000만원 이상 4건(5%)
근무형태	미제시	미제시	정규직 65건(77%) 계약직 7건(9%) 프리랜서,아르바이트 6건(7%) 모든 형태 가능 5건(7%)

한편 채용 공고 상에 제시되는 급여는 대부분 회사내규에 따르거나(63%, 46건) 면접후 결정(18%, 13건)하는 것으로 제시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한 14건을 분류해보면, 2,200만원 이상(5건), 2,500만원 이상(5건), 3,000만원 이상(4건)으로, 앞선 선행연구(김정순 외 2011)에 비해 10년의 차이가 있음에도 제시되는 임금이 거의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추가로 채용 공고상의 의료통역 주체의 근무형태를 살펴보면, 정규적이

77%(5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직(9%, 7건), 프리랜서 또는 아르바이트(7%, 5건), 모든 형태 가능(7%, 5건)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채용 기관이 의료통역 주체 고용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근무형태를 보장하고 장기근무가 가능한 인력을 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4.2 역할 분석

채용 공고를 통해 채용 기관이 제시하고 있는 국내 의료통역 주체의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 업무와 자격사항 및 우대사항을 분석하였다.

### 4.2.1 주요 업무

제목 또는 담당 업무에 명시되어 있는 주요 업무를 하나 또는 두 개 선정하여 그 빈도를 확인한 결과는 <표 6>과 같았다. 통역을 주요 업무로 명시한 사례가 46%(48건)로 가장 많았고, 코디네이터, 마케팅 업무를 명시한 경우가 각각 24%(25건), 21%(22건)를 차지하였다. 그 외에는 상담을 주요 업무로 제시한 사례가 7건, 기타에 속하는 컨시어지나 의료관광을 주요 업무로 하는 사례가 2건 있었다. 채용 공고를 검색하는 단계에서부터 ‘병원 통역’을 검색어로 수집한 자료이므로, 통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코디네이터나 마케팅을 주요 업무로 명시한 비중을 합하면 45%로 통역을 언급한 사례인 46%와 거의 유사하다는 결과는 의료 분야에서 의료통역은 코디네이터나 마케팅 업무와 병행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특히 주요 업무를 통역으로만 제시한 채용 공고는 19건인 반면, 통역과 코디네이터, 고객응대, 마케팅 업무를 같이 제시한 채용 공고가 28건으로 더 많았다. 주요 업무에 대한 분석은 국내 의료통역 주체의 명칭과도 연관되어 있다. 의료통역 주체가 통역 업무 뿐 아니라 코디네이터, 마케팅, 상담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면, 이들을 의료통역사로 부르고 업무를 통역 분야에만 국한하는 것은 현재의 사회적 환경과는 거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분석 대상 채용 공고에서 통역 코디네이터나 영어/태국어/중국어 코디네이터 등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표 6> 의료통역 주체의 주요 업무

구분	건수	비중
통역	48건	46%
코디네이터	25건	24%
마케팅	22건	21%
상담	7건	7%
기타	2건	2%

### 4.2.2 자격사항 및 우대사항

채용 공고에 나온 자격사항 및 우대사항은 해당 인력의 직무와 연관되어 있다. 채용 공고를 통해 통번역사 교육과 취업 방향을 제시한 유한내(2016)의 연구에서는 해당 내용을 직무능력으로 정리하여 빈도를 살펴보았다면, 이번 연구에서는 채용 공고의 문구를 가급적 그대로 사용하여 채용 기관에서 기대하는 의료통역 주체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AntConc 3.5.8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총 73개의 채용 공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격사항 및 우대사항 내용을 대상으로 빈도 분석을 실시하고(word types: 305, word tokens: 860), 주요 업무로 제시한 통역, 코디네이터, 마케팅 등의 단어를 제외한 후, 유사한 의미의 단어를 묶어 <표 7>과 같이 정리하였다. 무엇보다 관련 직무나 유관업무 경험을 우대한다고 언급한 횟수가 89건으로 가장 많았다. 거의 모든 채용 공고에서 해당 내용을 언급하였으며, 다른 표현으로 여러 번 언급한 공고도 다수 있었다. 반면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이나 의료통역사 검정과 같은 자격증을 언급한 횟수는 7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의료통역 주체를 채용하려는 기관에서 자격증 보유 유무보다 유사한 업무 경험이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한편 컴퓨터 활용 능력을 우대한다고 언급한 횟수는 59건 있었다. 의료통역이 아닌 일반 통역 채용 공고를 대상으로 한 유한내(2016)의 선행연구에서도 문서작성과 컴퓨터 활용능력은 통번역, 감수 업무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차지하여, 채용 기관에서 통역 주체를 고용할 때, 컴퓨터 문서 작업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의료통역 주체를 구인하는 채용 공고임에도 언어 수준을 능통하거나 원어민 수준이 아닌 해당 언어 가능자를 모집하는 공고도 다수 있어 학력 및 경력 조건 결과와 마찬가지로 의료통역 업무로의 진입 장벽이 낮은 것으로 파

약되었다. 한편 인터넷, 커뮤니티 또는 SNS 활용 능력을 언급한 횟수는 20건으로 홍보나 마케팅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 외 인근 거주, 서비스 마인드, 장기근무 가능 등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표 7〉 자격사항 및 우대사항 언급횟수

자격사항 및 우대사항	언급 횟수
해당 직무, 유관 업무 경험자(인턴, 알바 포함)	89회
컴퓨터 활용 능력 (문서작성, 통계분석, ppt, 포토샵)	59회
언어 능통자, 원어민 수준	54회
언어 가능자	48회
인터넷, 커뮤니티 또는 SNS 활용	20회
인근 거주자	17회
서비스마인드, 고객만족	13회
한국어 가능	9회
장기근무 가능	7회
관련 자격증 보유	7회
즉시 출근	6회
외국인	5회

## 5. 논의 및 결론

### 5.1 논의

선행연구에서 직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한 의료통역 주체의 역할과 채용 공고를 통해 볼 수 있는 구인 기관에서 기대하는 의료통역 주체의 역할은 무엇인가?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한 이번 연구에서 확인한 의료통역 주체의 역할을 <표 8>로 정리하였다. 우선 선행연구(김정순 외 2011; 정진철 외 2015)의 직무분석 결과를 통해 제시한 의료통역 주체들의 역할을 살펴봤을 때, 의료통역사 자격체제 개발을 위한 정진철 외(2015)의 결과에서는 의료통역을 중심으로 역할을 제시한 반면, 간호학 전공 연구자가 실시한 직무분석(김정순 외 2011)에서는 마케팅, 위기관리 등 다양한 역할을 직무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번

채용 공고 분석 결과의 경우, 선행 직무분석 연구처럼 구체적으로 책무와 작업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통역 뿐 아니라 코디네이팅, 마케팅, 상담이 주요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두 직무분석 선행연구 중 김정순 외(2011)가 제시하고 있는 역할과 더 유사하며, 다른 통번역학 선행연구(김순미 2020; 황지연 2015)의 결과와도 같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코디네이팅으로 표현되는 역할은 김정순 외(2011)의 직무분석 결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고객응대나 행정지원 업무부터 진료지원, 리스크 관리 등 넓은 범위의 업무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표 8〉 의료통역 주체의 역할

	직무분석 선행연구		채용공고 분석결과 2021년
	2011년	2015년	
역할	통역	진료통역, 검사통역 치료통역, 수술 및 시술 통역	통역
	고객응대, 관련행정업무 간호수행, 진료지원, 리스크 관리	의료행정지원	코디네이팅
	병원 마케팅, 관광지원	-	마케팅
	교육 및 상담	상담교육	상담
	자기개발	-	-

한편 이번 연구에서 수집한 채용 공고 분석 결과 중 향후 의료통역 주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자격 또는 검정시험 개선에 활용 가능한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의료통역 주체에 대한 수요는 일부 종합병원이나 대형 병원에 국한되지 않고, 성형외과, 피부과 의원, 병원 홍보·마케팅·컨설팅 업체, 콜센터, 보험회사 등 유관 기관으로 확장되어 있고, 업무 범위도 의료통역 뿐 아니라 홍보, 마케팅, 상담 업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의료통역 주체를 채용하려는 기관이 다양해지고,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이 아닌 정규직 형태의 인하우스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김순미(2020)에

따르면, 국내 대학병원 국제진료센터에서는 코디네이터를 고용하여 통역 이외 행정, 환자 유치, 웹사이트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비단 국내 대학 병원 뿐 아니라 국제진료 환자 수요가 많은 병의원에서도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의료통역 주체를 필요로 하는 언어가 다양해지고 있고 특히 동남아시아 언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형외과, 피부과 등 미용 관련 국제진료 시장이 생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베트남어의 경우, 결혼이민자 중심의 다문화 관점에서 논의할 때 주로 언급되었던 언어였지만, 이번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의료관광 수요도 성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의료통역을 의료관광과 다문화 관점으로 나누려는 시도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지역사회 통역이 발달한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의 경우 다문화 사회에서 국민의 권리로서의 의료통역이 발달한 것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정책적으로 의료관광을 활성화하면서 의료통역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국제진료 분야가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하여, 의료관광을 지원하는 문화관광부 사업, 국제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사업, 결혼이민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여성가족부 사업 등 정부 기관의 목적과 의도에 영향을 받아 왔다. 하지만 의료관광과 다문화 관점의 접근 방식을 구분하기보다는 환자 진료를 위한 의료통역이라는 보다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앞서 선행연구 분석에서 밝혔듯이 의료통역은 의료 서비스의 질, 환자 안전과도 밀접한 이슈인데(Roat and Crezee 2015), 국내에서 이에 대한 논의는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의료통역 주체에 대한 수요가 다양한 기관, 다양한 언어에서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이들에 대한 학력이나 경력조건이 엄격하지 않아 의료통역 주체로 근무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앞서 언급한 의료 서비스의 질, 환자 안전과 밀접한 의료통역의 품질을 낮추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의료통역 주체가 의료통역 뿐 아니라 홍보, 마케팅, 상담, 코디네이팅의 업무를 맡게 될 경우, 의료통역을 수행하는 주체들의 태도도 달라질 수 있다. 의료통역 주체들이 통역 시 고려해야 할 충실성, 윤리성에 얼마나 민감하게 의료커뮤니케이션을 조율하는지도 향후 다루어야 할 중요한 논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다.

넷째, 의료통역 주체를 채용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의료통역사 검정시험이나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시험 통과 여부보다는 유사 기관에서의 업무 경험을 더 우선시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와 의료통역사의 유사한 직무로 인한 혼동은 선행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한 사항으로(김순미 2020; 정진철 외 2015; 황지연 2015), 의료통역 자격체제 개발을 위한 연구보고서(정진철 외 2015)에서도 의료통역사 자격 신설 시 의료통역사의 역할 범위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향후 두 시험을 보완할 경우, 두 시험을 통합하여 ‘국제진료코디네이터 자격증으로 하고, 의료통역 주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의료 현장에서 가장 우선하는 실습 부분을 강화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 5.2 연구의 한계와 의의

이번 연구는 의료통역 주체를 모집하는 채용 공고 분석을 통해 의료통역 주체의 역할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연구자나 연구 대상의 주관적 견해로 인한 왜곡을 최소화하여 의료통역의 역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설문이나 인터뷰를 활용한 기존 선행 연구 결과를 보완하는 동시에, 향후 의료통역 주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현 자격시험 또는 검정시험을 수정 보완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연구는 의료 관광 분야와 다문화 분야라는 관점을 구분하지 않고, 의료통역 주체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라는 점에서 의료의 질, 환자 안전 등을 포함한 의료통역의 다양한 관점을 논의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연구의 한계로서 분석 대상 채용공고 수집 기간이 짧아 누락된 역할이나 수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채용 공고를 통해 의료통역 주체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파악하고, 기존 직무분석 결과와 비교하고자 하는 이번 연구 목적에는 부합하였다. 향후 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통시적 변화를 파악하거나 보다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채용 기관 종류에 따른 의료통역 주체의 역할을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현재 의료통역 주체를 대상으로 한 직무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직무분

석 결과를 업데이트하는 작업도 필요하겠다.

### 참고문헌

- 김기태 (2020) 「이주근로자와 내국인 의사 진료의 비판응용언어학적 연구: 세 기관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과학연구』 39(1): 295-329.
- 김순미 (2018) 「한국형 의료통역 연구」, 번역학연구 19(2): 7-37.
- 김순미 (2020) 「인하우스 코디네이터 중심 국제진료센터 의료통역 시스템 연구」, 통번역학연구 24(2): 33-64.
- 김정순, 김영혜, 김윤희, 이상주 (2011) 「DACUM 기법을 이용한 국제진료코디네이터 직무분석」, 『직업교육연구』 30(3): 353-372.
- 성영희, 임난영, 박광옥, 정정희, 권인각, 김을순, 황문숙 (2009) 「진료협력간호사의 역할규명을 위한 직무분석」, 임상간호연구 15(2): 139-155.
- 심원희, 이주연 (2016) 「통합건강관리간호사 역할규명을 위한 직무분석: 연 월제 건강관리 서비스 중심으로」, 간호행정학회지 22(2): 129-136.
- 유한내 (2016) 「통번역사 교육과 취업의 방향 제시를 위한 방안: 채용공고를 통해서」, 통번역학연구』 20(3): 51-75.
- 이지은 (2015) 「커뮤니티 통역사의 역할에 관한 논의」, 『통역과 번역』 17(1): 89-124.
- 정진철, 김강호, 정선정, 정동열 (2014) 「의료통역사 자격체제 개발 1차 연구」, 서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정진철, 김기용, 전승환, 정동열 (2015) 「의료통역사 자격체제 개발 2차 연구」, 서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조승아 (2017)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업무에 대한 역할모호성 및 역할갈등이 직무만족 및 직무수행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41(3): 201-217.
- 황지연 (2015) 「한국형 의료통역에 관한 소고」, 『통번역학연구』 19(1): 105-126.
- Angelelli, Claudia V. (2004) *Medical Interpreting and Cross-Cultural Communica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ufert, Joseph M. and Robert W Putsch (1997) ‘Communication through Interpreters in Healthcare: Ethical Dilemmas Arising from Differences in Class, Culture, Language, and Power’, *The Journal of Clinical Ethics* 8(1): 71-87.
- Lysaght, Rosemary (1997) ‘Job Analysis in Occupational Therapy: Stepping into the Complex World of Business Industry’,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51(7): 569-575.
- Roat, Cynthia E. and Ineke H. M. Crezee (2015). ‘Healthcare Interpreting in Holly Mikkelson and Renée Jourdenais (ed.) *The Routledge Handbook of Interpreting*, New York: Routledge, 236-253.
- Zhan, Cheng and Lishan Zeng (2017) ‘Chinese Medical Interpreters Visibility through Text Ownership: An Empirical Study on Interpreted Dialogues at a Hospital in Guangzhou’, *Interpreting* 19(1): 97-117.

<채용 공고 검색 사이트>

사람인 [www.saramin.co.kr](http://www.saramin.co.kr)

잡코리아 [www.jobkorea.co.kr](http://www.jobkorea.co.kr)

바이오헬스넷 <https://biohealthnet.kohi.or.kr/employ/recruit/list.do>

[Abstract]

### Roles of Medical Interpreting Agents Using Job Advertisements

Kim, Minjung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roles of medical interpreting agents using 73 job advertisements and compare the roles with the job analysis results of medical interpreting agents from previous studies. Data on recruitment websites, publication dates, titles of posts, and recruiting institutions were collected in online job advertisements. Furthermore, this research obtained information on the educational background and experience required for the position, employment status, salary, major tasks, eligibility, and preferred qualifications.

As a result, it was revealed that the medical interpreting agents roles in job advertisements were interpreting, coordinating, marketing, and consultation. In addition, it was investigated that not only general hospitals, hospitals, and plastic surgery and dermatology clinics but also advertisement and marketing companies recruited medical interpreting agents. It was also disclosed that the academic qualifications and language proficiency levels indicated in the job advertisements for medical interpreting agents were insufficient. Lastly, it was identified that recruiting institutions prioritized comparable job experience over a medical tourism coordinator or medical interpreter certificate.

▶ Key Words: Medical Interpreting, Agent, Role, Job Analysis, Translator's study

▶ 주제어: 의료통역, 주체, 역할, 직무분석, 번역사학

김민정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학과 박사과정

whismj@gmail.com

관심분야: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사회번역학, 의료통역

논문투고일: 2021년 9월 5일

심사완료일: 2021년 9월 28일

게재확정일: 2021년 10월 7일